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9월 4일(주일) 제1408호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지난해 이월생중계로 열린 '2021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집회.

11월 2~3일 미야자키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9월 3일부터 18일까지 3주 동안 참가자 모집

32번째 러브소나타가 열린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가 11월 2일(수)과 3일(목) 일본 미야자키현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에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를 주제로 막 오른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에서는 9월 3일(토)부터 18일(주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온

누리교회 본관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는 목회행정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일정은 A팀 11월 1~4일, B팀과 강동팀 11월 2~5일, 참가비는 108만 원이다(후쿠오카-미야

자키 국내선 환승 50만 원 추가).

러브소나타 미야자키에서는 교회 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 포럼,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진다. 11월 2일에는 교회세미나(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이벤트홀)와 가스펠나이트(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연극홀), 3일에는 리더십 포럼(미야자키관광

호텔)과 러브소나타 집회(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연극홀)가 진행된다.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前 주중대사), 이기복 목사(트리니티신학대학원 교수)가 강의한다.

가스펠나이트에서는 오타 유사쿠 목사(안디옥선교회)가 설교하고, 미야자키가스펠콰이어, M-seed(콰이어)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모리 유리(가스펠

가수), 이와부치 마코토(가스펠가수), 김영미(소프라노), 배재철(테너), 송솔나무(플루티스트), 범키(뮤직 아티스트), 크룩스(가스펠보컬밴드)가 공연한다.

미야자키는 일본 규슈 남동쪽에 있다. 연중 따뜻한 날씨로 프로스포츠팀의 전지훈련지로 유명하고 '신화의 고향'이라 불릴 정도로 복음화가 절실한 지역이다.

문의: 02-570-741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The Only Way'

9월 10~11일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Harvest) 2022'

온누리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비스트(Harvest) 2022' (이하 하비스트)가 9월 10일(토)과 11일(주일) 안산M센터(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The Only Way'를 주제로 막 오른다.

이번 하비스트에는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비스트 실황은 온누리미션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이번 하비스트에서는 10일(토) 저녁 집회, 11일(주일) 연합예배와 페스티벌(자선장) 등이 진행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와 노규석 목사(온

누리미션)가 강의한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하비스트를 위한 봉사자 40명을 모집한다. 방송 미디어, 어린이사역, 주방, 의료, 식사준비, 통역, 접수, 미화, 숙소 세팅, 게임 진행을 섬겨줄 성도(성인, 어린이)가 대상이다. 11일 페스티벌(자선장)에서 사용할 물품 후원도 받는다. 자선장 수익금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몽골 어린이 '아나르'를 후원한다.

문의: 자원봉사: 010-8901-8958

물품 후원 010-9418-1910

후원: 573-810031-74605(하나은행)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정현주 기자

2022 유스원크라이 'Build Up'

9월 5~8일까지

한국 교회 청년 연합기도회 '2022 유스원크라이'가 9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오후 7시 30분 'Build Up'을 주제로 진행된다. 9월 5일(월) 중앙감리교회(종로구 인사동5길 25), 6~8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집회 실황은 유스원크라이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2022 유스원크라이에서는 한국 교회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주안장로교회, 소망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등 30개 교회가 연합한다. 문의: 010-5768-22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9월 25일까지 헌금 및 대상자선정

온누리교회가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교회 밖 이웃, 기관 등에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수확한 쌀(20kg)을 나눠준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성도들은 9월 25일(일)까지 헌금 6만5천 원(쌀 20kg 한 포대 가격)을 봉헌하고, 각 공동체 담당 목회자와 대표 장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빙고와 양재는 이웃사랑팀,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교회 밖 이웃과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회선교본부에 문의해야 한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풍성했던 것처럼, 사르밧 프로젝트가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창 5:5)

창세기 5장에는 아담과 그 후손들의 수명이 아주 정교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 아담 930세, 셋 912세, 므두셀라 969세 등 창세기 족장들은 모두 초장수인들이었다. 100세를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살 가까이 살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기록이다. 그래서 당시 1년의 단위가 지금과 달리 짧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창세기 초장수인들의 기록은 허구일까?

우선 당시 1년의 단위가 지금보다 짧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의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창세기 1장 14절에 날과 계절과 해(1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질서가 생기면서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다. 창조질서는 변화 없지만, 지구는 대홍수 심판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창세기 족장들의 초장수 수명은 바로 대홍수 전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화석의 증거들도 과거의 지구와 지금의 지구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온

화한 기후를 가졌으며, 같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훨씬 거대하였다. 어떻게 과거에 거대한 생물체들이 살았는지 신비롭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하다. 파충류들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거대한 크기는 곧 오랜 수명을 의미한다. 과거 거대한 동물화석은 파충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유전적인 건강성도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족장들의 1,000살 가까운 수명은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들과 잘 부합된다. 그러나 진화론은 대홍수 격변으로 인해 생겨난 전 지구적인 수많은 지층구조를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생명체들이 지층의 순서에 따라 저절로 출현했다고 믿기 때문에 거대 화석과 창세기 초장수 수명이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1,000살 가까운 수명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명과학의 지식이 쌓이면 알게 되었다. 생명과학자들은 사람의 유전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구글은 인간의 수명이 미래에 500세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장수에 대한 예측을 통해 과거 창세기 초장수인들에 비해 100세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던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어야 하는 계안타까우셨을 것 같다. 그래서 1,000살 가까운 초장수 수명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 창세기의 초장수 수명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들의 수명이 다시 대홍수 심판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다.

“100세에 죽으면 ‘아주 젊을 때 죽었구나’ 하고… 내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손수 만든 것을 닳을 때까지 쓸 것이다”(사 65:20-22).

우리가 이 예언처럼 천년을 산다면 어떤 삶

을 계획하고 살아야 할까? 건강하게 오래 풍요롭게 사는 것 자체가 약속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창세기 족장들의 시대가 그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에녹이다.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시다가 죽음 없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에녹처럼 죽음도 넘어서는 뜨거운 동행을 원하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죽음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이 땅에서 동행하시는 일을 이미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를 그분과 천년이 넘는 영원한 삶의 동행에 초청하고 계신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삶 QT 프리뷰(Preview)

언약 성취와 순종테스트

9월 5~11일
창세기 19:23~22:14



에 따른 룯의 결말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묵상하자.

▶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향과 불을 비같이 내리신다.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만다. 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거역해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 뒤돌아보는 소돔을 동경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룯은 작은 소알성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해 두 딸과 산속 굴로 가서 거주한다. 결혼 상대가 없는 두 딸은 후손을 잇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한다. 큰딸은 모압을, 작은딸은 벤암미를 출산하는데, 이들은 각기 모압과 암몬족속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던 룯의 신앙 여정은 탐욕과 불신으로 인해 치욕으

로 마무리된다.

묵상포인트 1: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만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최후 심판 날의 예표라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룯의 후반부 인생은 치욕적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불신 선택

묵상포인트 2: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수를 반복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일하신다. 때가 되자 아브라함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자녀가 태어난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웃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하자.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탈에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돌려댄다. 애굽에서처럼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언약함에도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얼굴에 웃음(이삭)이 피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사라는 이삭이 이스마엘과는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기에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한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도 채우시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니,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기적같이 얻은 아들, 늘어 가는 재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등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길에서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묵상하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

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탈 왕 아비멜렉이 이를 아브라함 앞에서 시인한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샅다는 증거로 어린양 일곱 마리를 주면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다. 아브라함이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 땅을 산 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작은 징표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명령을 시행한다.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라는 아들의 물음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한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 때마침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보내 주신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의 경외심과 온전한 순종에 하나님의 폭풍 칭찬이 따른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나게 한다. 소돔에서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룯을 기억하자(벧후 2:8).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게 주신 약속이 더딜지라도 소망으로 기다리자. ▶하나님은 순금 믿음으로 단련하 시려고 나를 시험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만 굳게 믿고 순종하자.

/ <생명의삶>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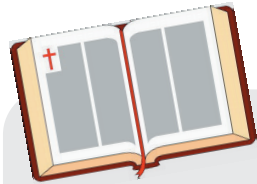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아내와 다시 만날 아기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름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워 익명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5년 차 부부입니다. 5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참 많았는데, 임신과 출산 문제는 저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아내가 처음 임신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평소 아이를 좋아하던 저희 부부는 임신 7주 차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유산했습니다. 첫 아이를 보낸 뒤 8개월 만에 다시 저희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까. 유산 경험이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이번에도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유산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올해 또 유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던 교회 생활도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시는 순창님이 함께 기도해주시며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아내는 아직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유산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은지 4개월째 되어갑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위로의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새로 시작하는 치료가 잘 되어서 저희 가정에 또 다른 생명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주시시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모든 변화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틀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매 단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정체할 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려면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네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넷째,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려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

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은혜 아래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14절).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만 씻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의롭다고 선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의롭다 선언하며,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부르심과 명령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달을 때 은혜를 체험하며 자랍니다.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벧후 3:18).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습니다.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롬 5:17).

‘은혜와 의의 선물’은 죄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전투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십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순종의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 아래 순종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의 변화된 삶을 세 가지 대조를 통해 설명합니다. 첫째, 이제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시오”(12~13절).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 생명은 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데 일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불의의 무기가 될 때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 문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히는 불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잊지 마라. 거룩한 사람들 역시 육체 안에는 사악한 욕심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둘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례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16~18절).

‘종’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죄의 종이였다가 이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주

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죄인입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알아야 주인입니다. 어떤 물건의 주인이라면 그 물건 값을 지불해야 주인입니다. 그 물건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시작과 끝을 결정지을 수 있어야 주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그 시점에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 혹은 무엇에 의해 제한되고 의존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도 의존적인 자율입니다. 어떤 대상을 의존할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사탄을 의존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할 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됨으로 죄의 종의 상태에서 중립적인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왜 출애굽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까? 인간 전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그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종 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없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종 된 습관이 살아있어서 곧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의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광야를 겪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고부 문제 등으로 광야를 겪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자신을 내어 드릴 때 끝납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드러냄으로 우리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습관을 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에 광야가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2022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뒤 검소한 선물들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많지만, 자연 만물들과 이 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2022년의 추석을 자연을 창조하시고 가꾸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재정, 관계, 환경, 미래, 자식, 직장, 부모, 친구, 나라 걱정 등 생활 속 모든 단어에 ‘걱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25절)고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예수님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26절),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2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도, 백합화도 자신이 살아갈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과 형편에 맞게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서 도달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목적 달성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날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걱정을 모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34절).

나가는 말

추석은 추수가 마쳐진 저녁을 의미합니다. 추수한 총량은 해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린 후 수고하여 추수에까지 도달했다는 자체가 진정 감사할 일이며, 추수가 마쳐진 저녁에는 추수한 양과 관계없이 풍성한 마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한 결실들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처럼 여기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시는 풍성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추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80장(내 평생 사는 동안).....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마태복음 6:25~34.....	가족 중에서
설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588장(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말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와

우리는 모두 당황했고, 일상이 멈춰지거나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봄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선포했고, 대부분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중입니다. 아직은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시편 116:7~15.....	다같이
찬송	찬408장(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복음 5:24~30.....	가족 중에서
설교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세요.....	설교자
찬송	찬413장(내 평생에 가는 길).....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세요

사랑하는 000가 우리의 곁을 떠난 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가족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 소망이 가득 찬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할 것 1: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은 핍박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신성모독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24절)고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부활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소망할 것 2: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며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은 누구에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지켜가는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 충만히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요 1:4).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소망할 것 3: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25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

해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29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에 비우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a,16).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나가는 말

고인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날 잠에 빠져 있음을 믿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생명의 빛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며,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인과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만들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부안 청림교회 아웃리치

고즈넉한 부안 청림교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 주인공은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하 농어촌선교팀)이다. 농어촌선교팀이 지난 7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부안 청림교회에서 아웃리치를 했다.

농어촌선교팀과 부안 청림교회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림교회는 올해 2월 농어촌선교팀의 도움으로 교회 건축공사를 했다. 청림교회는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어서 건물 건축을 할 수 없었다. 그 탓에 가건물 하나로 30년 넘게 버텼다.

2005년 송기원 목사(청림교회 담임)가 부임해서 열심히 전도한 덕분에 성도가 늘었다. 더는 가건물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다. 송기원 목사가 몇 년 동안 관공서의 문이 닳도록 드나든 끝에 간신히 건축허가를 받고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재정 압박과 성도들의 이탈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새 교회를 짓다만 상태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농어촌선교팀을 만났다. 농어촌선교팀의 도움으로 새 교회 건축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송기원 목사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행한 교회 앞마당이 마음에 밟혔기 때문이다. ‘교회에 아름다운 화단이 생기면 오가는 주민들도, 성도들도 좋아할 텐데...’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청림교회 아웃리치에서 교회 화단을 만들고(왼쪽),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오른쪽).



송기원 목사의 기도제목이 또 한 번 응답됐다. 농어촌선교팀이 3일 동안 구슬땀 흘리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줬다. 낙산홍, 백일홍, 순결나무, 붓꽃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교회 앞을 한결 화사하고 생기있게 해줬다. 그 화단의 이름이 바로 ‘에덴동산’이다.

조경팀이 청림교회에 에덴동산을 만들고 있을 때 마을회관에서는 한방팀과 미용팀이 마을 주민들을 섬겼다. 그 아름다운 헌신 덕분에 주민 2명을 전도했고, 주일예배도 함께 드렸다. 날씨도 덥고, 잠자리도 불편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곽혜숙 자매(미용

봉사팀)는 “아프리카 아웃리치 다녀와서 하루 쉬고 청림교회 아웃리치를 왔는데, 예쁘게 머리카락이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피곤이 가셨다”고 했고, 이영근 장로(서빙고 농어촌선교팀)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아웃리치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팀원들이 ‘그래도 가야 한다’고 결정해줘서 감사할 뿐”이라며 “앞으로도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농어촌교회들을 더 열심히 돕겠다”고 다짐했다.

청림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도 기쁨과 감사를 노래했다. 고이석 집사(청림교회)는 “조경공사가 정말 고됐지만, 농어촌선교팀과 합

께라서 기쁘고 즐거웠다”고 고백했다. 김상기 장로(고창덕천교회)는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10개만 더 있어도 대한민국에 미자립 농어촌교회가 없어질 것”이라며 “성심성의껏 청림교회와 주민들을 섬겨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황연경 사모는 아름답게 완성된 ‘에덴동산’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정원이고, 또 하나는 농어촌선교팀입니다. 농어촌선교팀원 한 분 한 분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웃리치 팀원의 간증



김종문 총무
(북누리공동체,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 처음 맞이한 아웃리치였다. 계획에도 없던 팀장 역할도 맡게 되었다. ‘아직 팀원들과 친숙하지 않고, 농어촌선교팀에서 경험도 부족한 나에게 중대한 역할을 맡기다니, 나를 시험하기 위함인가?’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래왔던 것처럼 도망치지 않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웃리치 한 달 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알람을 받았다. 그 알람은 장염이었다. 나는 장염과 깊은 인연이 있다. 첫 해외 아웃리치에서도 장염에 걸려 고생한 적이 있고, 몇 해 전 공동체 아웃리치 사전단사 때에도 장염에 걸렸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장염을 겪었다. 밤새도록 복통에 시달리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예전에 장염 걸렸을 때처럼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뿐이

“별을 보라”

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지켜보거라.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고통스러운 장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운 아웃리치가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번 농어촌선교팀 아웃리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은 인원이 참가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더욱 알차고 풍성했다.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 근처 교회 목회자들까지 마음에 흡족한 미용 봉사를 받았다. 믿지 않는 주민 수십여 명이 찾아와 머리도 하고 복음도 들었다. 한방의료

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음식 대접도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한몫했다.

아름다운 정원이 생기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온 청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의 바람이 이뤄지기도 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웃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팀원들의 모습에서 주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내 실수조차 충분한 은혜가 되도록 이끌어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셨다. “별을 보라”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하다.

청림교회에서 보내온 편지



송기원 목사
(부안청림교회)

이번 여름은 저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청림교회와 동역하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멀리 전라북도 부안의 산골짜기까지 달려오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와 섬김 정신 하나로 열과 성의를 다해 섬겨주시는 모습에 크게 감동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2박 3일 동안 청림교회 앞마당에 화단을 조성해주셨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한방과 이미용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도 맺었습니다. 새로운 결신자 2명이 주일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성도 10명이 채 안 되는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2명

은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농어촌선교팀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입당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려준 덕분에 아름다운 교회 화단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입당예배를 드리고, 전도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교회 앞을 지날 때마

다 아름다운 교회 화단을 보면서 좋아하고, 마음껏 쉬어가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안 지역 복음화’라는 사명 하나로 시골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림교회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도록,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빛진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늘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집기획 '로대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

법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미국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

대한민국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낙태죄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명시된 형법 조항에 대하여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배경이 된 미국 낙태 합법화 판결(로대웨이드 판결)이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명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5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가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서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학교 교수, 바른인권여성연합 자문위원)가 ‘로대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이상원 교수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바른인권여성연합 자문위원)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Dobbs) vs 잭슨(Jackson)’ 판결문에서 미국 텍사스주 형법의 낙태금지 조항을 폐기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Roe) vs 웨이드(Wade)’ 판결을 폐

기하면서 판결 이유를 밝힌 장문의 글을 통하여 ‘Roe vs Wade’ 판결이 미국 사회에 끼친 패해를 언급했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20세기 후반까지 미국법에는 낙태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1973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 3/4이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가 아닌 한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나머지 1/3이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긴 했으나 일정한 임신 기간에 대해서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고, 낙태를 규제할 권한을 열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Roe vs Wade’ 판결은 낙태 문제에 대한 민주적 논의과정을 막아 버리고, 낙태권 폐기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억압적인 체제를 전 미국민들을 향하여 강요했다. ‘Roe vs Wade’ 판결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모든 주들의 형법을 괴멸시켰고,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된 격렬한 낙태죄 찬반 논쟁에 불을 붙였다.”

‘Dobbs vs Jackson’ 판결문은 하나의 법 조항의 변화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의 변동과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생각과 삶의 변동에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잘 보여 준다. 하나의 법안이 바뀌었을 때 이른바 ‘세상’이 바뀐 것이다. 한두 줄 정도밖에 안 되는 법 조항 문구의 변화가 엄청난 사회 변동을 가져온다는 역사적 현실만으로도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법의 변화’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인이 법의 변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대응방법이다. 둘째, 미 대법원의 두 판결문이 생명의 시작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생명윤리가 임신설 혹은 수정설의 입장을 견고하게 견지할 때 일관성 있는 논증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낙태죄법 제정을 위한 정치 운동은 단지 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기독교 생명윤리교육과 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간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임을 강조한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인간의 행동은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의 유형은 개인의 결단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의 결단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다. 개인의 결단에 따라서 행한 행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반성을 하는 작업을 ‘개인윤리(personal ethics)’라 하고, 집단의 결단에 대하여 비판적인 반성을 하는 작업을 ‘사회윤리(social ethics)’라고 한다.

개인의 결단에는 개인이 가진 내적인 자질, 덕성, 세계관, 사상, 감성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인윤리는 덕의 윤리, 심성의 윤리, 세계관 등을 중시한다. 그러면 집단의 결단이란 무엇인가? 어떤 집단이 조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50명으로 구성된 학급에서 수업을 몇 시에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해보자. 50명을 모아 놓고 의견을 듣는다. 어떤 사람은 8시, 어떤 사람은 10시, 어떤 사람은 오후 2시를 제안한다. 의견을 다 들은 다음 가장 많은 구성원의 지원을 받은 시간이 10시임이 확인된다. 학급의 대표자는 “우리 학급의 수업은 10시에 시작한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이것이 집단의 결단이다. 이 원칙이 선언되고 나면 모든 학급원이 이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면 선이고, 이 원칙을 어기면 악이 된다. 이 원칙은 한 줄이지만 학급원 전체의 행동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한다.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줄 결정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집단구성원 전체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때 집단의 결정이 올바른가, 구성원들은 집단의 결정에 따라 행동했는가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사회윤리’다. 집단의 결정을 ‘제도(institution)’라

고 부른다. 제도는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체제라고 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윤리는 제도 혹은 법을 다루는 작업이다. 현행 제도 혹은 법이 바르게 만들어져 있는지 따지는 작업이 곧 사회윤리다.

19세기 말까지 기독교 윤리학의 비판적 반성 작업은 개인윤리의 영역에 제한되었다. 제도나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제도나 법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왕권 신수설이 이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 사상이 등장하면서 정치경제구조나 법이 시민들의 합의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등장했다. 19세기 말 기독교 사회사상가들은 제도나 법을 사람이 형성시킬 수 있다는 계약 사상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네덜란드의 기독교 사회사상가 흐론 반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다. 반 프린스터러는 자녀 양육권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돈벌이를 위해 어린 자녀들을 노동에 내보내는 유아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인식하에 교육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카이퍼는 19세기 말 후기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구조적 비판과 그 대안으로써 사회구조에 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논증을 제시했다. 반 프린스터러와 카이퍼 논증의 핵심에는 사회구조나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춰볼 때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비례하는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이 견지해 오는 중요한 보편적 명제 가운데 하나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이다(마 7:17).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이 명제는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한다. 마음이 선하게 변하지 않은 사람이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가지는 생각은 이렇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사회구조는 자동적으로 선한 구조로 바뀐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회구조도 선한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구조변혁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조건은 아니며,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과 정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당시 나치군에 징집된 독일 병사 대다수는 루터교인 아니면 가톨릭 교인들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착한 소시민들이었다.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의 논리에 따르면 평범하고 착한 소시민들로 군대가 구성되었다면, 군대 자체도 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치군은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나치군은 이 악행을 양심의 가책 없이 수행했다. 일본군도 마찬가지였다. 2차대전 당시 남경대학살과 위안부 사건에 참여했던 일본군 병사가 노인이 되어 네덜란드 TV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한 일이 있다. 이 노인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었다. 남경대학살과 위안부 사건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를 물었더니 “당시에는 당연히 해야 할 국가의 의무로 알고 참여했고, 그 참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수의 착한 소시민들이 악을 추구하는 집단에 들어가서 이념화되면 순식간에 그 집단의 집단 악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대장 곧, ‘완장’들로 무너져 내린다. 아무리 탁월한 정치인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자신이 속한 정당이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경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정당의 집단신념에 종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변화된 개인들의 숫자가 증가해도 이에 정비례해서 사회구조가 선한 구조로 바뀌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어질 글에서 그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그 세 가지 이유는 모든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관련된 것들이다(계속).

III 강영재 장로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산당이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과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전 연세
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성경을 읽으며 같은 듯 다른 단어를 만나게 된다. 그 단어를 살펴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가령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습니다”(왕하 14:4)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 때 산당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곳 같은데, 선지자 사무엘과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이방신 섬기는 곳이 아닌 곳으로 보인다. 동일한 산당이라는 단어로 다른 성격의 장소가 기술되어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개정개역이나 우리말성경 구약성경에는 ‘산당’이라는 단어가 77회 나오는데 이 중에서 59회가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에 집중해서 나온다. 산당(high place)은 높은 산에 설치한 제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단과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 아래 4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사무엘 때의 라마 산당과 솔로몬 성전 건축 전의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으나 나머지 산당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제사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이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의 산당

사무엘상 7장 17절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의 산당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이 산당은 라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이 산당이 계속 등장한다(삼상 9:12, 13, 14, 19, 25, 10:5, 13).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삼상 7:17).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가셨으니 서둘러 가 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삼상 9:12).

다윗이 다스리던 성전 건축 전에는 여호와와 장막(성막)을 기브온 산당에 두고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렸다(대상 16:39~40, 21:29).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와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와 율법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대상 16:39~40).

솔로몬도 왕이 된 직후 일천번제를 기브온



기브온 산당.

산당에서 드렸는데 성경 번역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이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왕상 3:2~4, 대하 1:3, 13).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왕상 3:2~4).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벤엘과 단에 세운 산당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인한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벤엘과 단에 산당을 세웠다(왕상 12:27~29). 이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선조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왕상 12:31~2, 13:32~3).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벤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왕상 12:27~29).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여덟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벤엘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벤엘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왕상 12:31~32).

남유다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산당들

히스기야 당시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존재했으나 히스기야가 제거했다(대하 32:12).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대하 32:12, 개역개정).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들을 다시 세웠으나(대하 33:3~5) 회개 이후 이방신 섬기는 산당은 모두 제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대하 33:15~17).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와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와 성전 안팎의 뜰에 하늘의 모든 별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대하 33:3~5).

“그는 이방신들을 얹고 여호와와 성전에서 자기가 성전 산과 예루살렘에 지어 놓은 모든 제단들을 비롯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와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으며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되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대하 33:15~17).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민수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오는 나머지 대부분의 산당은 가나안의 이방신들인 바알, 그모스, 아스다롯, 밀곰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산당들이었다(민 22:41, 33:52, 왕상 11:7, 14:23, 15:14, 22:43, 왕하 12:3, 14:4, 15:4, 35, 16:4, 17:9, 11, 29, 32, 18:4, 22, 21:3, 23:5, 8, 9, 13, 15, 19, 20, 대하 11:15, 14:3, 5, 15:17, 17:6, 20:33, 21:11, 28:4, 25, 31:1, 33:3, 19, 34:3).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왕상 11:7, 개역개정).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미가에도 산당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지만 일부 드물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있어 앞뒤 문맥을 살펴 이해하면 된다(시 78:58, 사 15:2, 16:12, 렘 17:3, 19:5, 26:18, 32:35, 48:35, 겔 6:3, 6:6, 16:16, 20:29, 호 10:8, 암 7:9, 미 1:5).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나안 정착 이후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의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산당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이후 산당들은 일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와 방법이 아닌 제사나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산당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드릴 수 없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하나님만 모시는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며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외에 돈, 명예, 쾌락 등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게 되면 더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온 산당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판별하기 전에 그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지 아니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곳인지를 살펴야 한다.

“선교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 총장 강요엘 선교사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 총장에 취임한 강요엘 선교사와 아내 염명순 선교사.

몽골에서 손꼽히는 사립대학교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 총장에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강요엘 선교사(가정사역공동체)가 취임했다. 9월 1일(목)부터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 총장으로 섬기게 된 강요엘 선교사는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30여 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재학당을 세울 때 그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

다. 1993년 윤순재, 이계심 선교사님이 시작한 한국어학원이 지금의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을 몽골에서 가장 좋은 기독교 대학교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늦깎이 선교사의 또 한 번의 도전

강요엘 선교사는 늦깎이 선교사다. 한평생 교직에서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했

다. 백석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가르치다 은퇴를 한 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요엘 선교사는 2020년 중앙아시아 B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 그곳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섬겼다.

“은퇴를 앞둔 5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여생을 선교에 헌신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선교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역시 선교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강요엘 선교사의 아내 염명순 권사도 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다. 학원선교를 하기에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었다. 서로 도우며 중앙아시아 B지역에서 학원선교를 하던 중에 염명순 권사가 큰 수술을 해야 했다. 국내로 들어와 몸을 추스르면서 다음 선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일에 그들을 부르셨다.

“저희 부부는 무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에서 새로운 총장을 세우는 데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몽골은 가본 적도 없고, 선교지로 생각해보는 적도 없는 나라여서 그런지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몽

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에 꼭 필요한 사람이 총장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 총장으로 섬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9월 1일(목)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 총장으로 취임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강요엘, 염명순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몽골의 다음세대를 섬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 설립 이후부터 온누리교회가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몽골 국제울란바토르대학과 온누리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세대를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22 사르밧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선교는 이웃을 살피면서 시작된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부)

매년 추수감사절에 진행되는 ‘사르밧 프로젝트’는 ‘감사의 쌀’을 나누는 선교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사르밧 프로젝트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고 있다. 참여하는 성도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섬김 내용

과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에는 순과 개인을 합쳐서 2,646명이 참여했다. 쌀은 개인과 기관을 합쳐서 1,358곳에 보냈다. 또 한 성도의 헌신적인 참여로 10kg짜리 쌀 1,500포대를 한동대학교와 포항시와 연합해서 포항시에 거주하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웃 1,500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이 순 식구들을 포함해 1만 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이 사역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어떠한 효응을 얻었는지 알 수 있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사랑의 연합이다. 이웃사랑팀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한다. 20kg짜리 쌀을 구매하기 위한 현금

을 모으는 일과 그 쌀을 선물로 받게 될 대상자를 모집하는 일, 그리고 그 쌀을 대상자들에게 보내는 일 등을 감당한다.

‘농어촌선교팀’은 쌀을 공급해 줄 농촌 교회와 농가를 전국에서 찾아 선정한다. 농가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고 심사숙고한다. 농촌 교회를 통해서 쌀 공급처로 지정된 농가는 정성스럽게 햅쌀을 준비해 대상자들에게 택배를 발송하는 일을 감당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순과 성도’, ‘이웃사랑팀’과 ‘농어촌선교팀’ 그리고 쌀 공급처가 될 ‘농가’와 그 농가를 추천하는 농촌 교회 등 다섯 팀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한다. 연합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사역이다.

흑자들은 ‘요즘도 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 여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0년과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5.3%가 빈곤층에 속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46%의 사람만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보고 있다. 여기에다 요구 조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수를 더하면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쌀을 많이 나누수록 좋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농가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품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쌀값을 흥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가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값을 정했다. 올해는 쌀 20kg에 해당하는 값과 택배비를 포함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65,000원으로 책정했다.

감사의 쌀을 나눌 대상자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청된 교회 내 성도들과 청년들이 우선이다. 사랑의 쌀 나눔에 여유가 생기면 교회 밖의 이웃들과 ‘1다락방1사역’으로 돕고 있는 교회, 시설 등에서도 함께 봉사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이후 기관의 후원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깝다.

선교는 이웃을 살피면서 시작된다. 각 공동체는 담당 목사님과 대표장로님이 확인한 다음 9월 2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캠퍼스 담당 부서에 전달해주면 좋겠다. 쌀은 지난해처럼 공동체에서 추천한 대상자들에게 현지에서 직접 택배로 발송해 줄 예정이다. 단 서빙고, 양재를 제외한 캠퍼스는 캠퍼스 상황에 맞도록 대상자에게 감사의 쌀을 전달할 수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교회 내 공동체 식구들을 돌아보고,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계좌]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온누리교회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 온누리교회
대전: 하나은행 573-910019-44005 온누리교회
남양주: 하나은행 573-910019-43305 온누리교회
인천: 하나은행 573-910019-38805 온누리교회
부천: 하나은행 573-910007-05705 온누리교회
수원: 하나은행 573-910019-42705 온누리교회
평택: 하나은행 573-910019-45605 온누리교회
강동: 하나은행 573-910019-39405 온누리교회
양지: 하나은행 573-910019-40405 온누리교회

라떼는 말이야

신앙의 동지들과 같이 가라!

7년 전 ‘CHPLUS청년부’가 세워지면서 멘토로 섬기게 되었다. 많은 청년들의 고민은 진로와 결혼문제도 있고, 해결하기 힘든 재정이거나 관계의 어려움처럼 내놓기 쉽지 않은 비밀도 있다. 신앙의 선배로서 만족할 만한 답을 제공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나는 어떤 조언을 받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왔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청년의 때는 이뤄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자원이 매우 부족해서 배우기에 적합한 시기다. 그래서 나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멘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앞만 보고 달린다 보니 도움을 구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다.

청년들과의 상담에서 연애나 결혼문제는 무척 난해하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적절한 배우자인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기 위해 설득해야 하는데 묘수가 없는지” 등 고난도 질문을 받으면 난감해진다. 정답이 딱히 없고,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물음은 경청해주면 자연스레 스스로 답에 도달하는 것 같다. 충분한 공감과 진정성을 가지

고 들어주면 나름 본인 안에서 해결 방법이 정리되어 나온다. 보통은 이미 기대했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스스로 도출한 깨달음이어서 결국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누군가 집중해서 들어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혜로운 분들에게 듣는 한마디가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한다. 연륜이 차고 책임지는 외로운 위치에 가면 솔직한 직언을 듣기 어려워진다. 이직이나 진로에 관한 경험자들의 한마디 방향 지시가 청년들에게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얻는 듯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유럽에서 여러 나라로 또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오래 떠났던 한국에 온 직후 적응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다. 처음 6개월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고민했다. 어머니께서 “온누리 교회로 가보라”고 권면하셔서 교회를 정하게 되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고 그 결정은 결과를 본 다음 비로소 평가되는데, 온누리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었고, 정말 큰 축복이다.

종종 내 수준을 넘어서는 현재의 안목으로 곧바로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들도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려면 신앙의 단계를 높여야 한다. 온누리교회에 성실히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로 기본에 충실하면 신앙도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을 체험했다. 풍파에도 지켜야 할 뿌리인지, 과감하게 쳐내고 바꿀 가지인지 구분하기 시작했다. 결핍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주어진 것들을 자족하며 누리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내가 오래 살던 독일의 기술 전문은 ‘도제식’이다. 하루하루 배우면 어느새 마이스터(Meister)가 된다. 행동으로 가르친다. 조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성은 협업과 의사소통에 능숙하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며 검증해야 한다. 온누리교회의 홀

륭한 멘토님들, 장로님들과 교역자 등 존경하는 신앙 선배들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도 그 뒤를 따라간다. 멘토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청년부에서 성인공동체로 오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멈추지 않고, 공동체에서 이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인생의 난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다. 예수제자학교나 NGO 더멋진세상 활동을 하면서 신앙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고, 정진하는 행복을 누리보자. 내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신앙의 동지들과 어깨동무하고 한 발 한 발 같이 가기를 권한다.



이원장 멘토
(CHPLU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서로 순종과 서로 사랑

부부는 서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순종과 사랑을 완성해 가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종종 상대방이 자기에게 조금 더 맞춰 주기를 원한다. 자신의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주기를 원한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조금 더 순종해주기를 원한다. 순종을 덕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아내들은 남편들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희망한다. 어쩌면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순종의 의미도, 사랑의 의미도 경험하지 못한 채 갈등의 쳇바퀴에서 힘겨워할 수 있다.

어떤 아내가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순종의 의미가 복종의 의미까지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고 할 수 있는 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뜻을 따랐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의견도 있는데 늘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지 의문이 들었다.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의 부담이 자신을 힘겹게 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 우울감이 생겼다. 자신의 의견은 묵살 되어도 좋은가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자주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것이 바람직한 순종의 결과일까?

순종은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존재 의미까지 의심할 정도의 순종 혹은 복종의 형태가 부부 사이에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순종의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는 것이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을 남편들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을 정의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실천적으로 본다면 가정에서 아내, 엄마의 헌신과 봉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헌신으로 표현된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 엄마의 사랑의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일 때가 많다. 때문에 남편들이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이뤄가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 평가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자신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헌신이 사랑인데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실천하는 상황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남편들이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시작점은 부부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이지만 부부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받아야 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순종과 사랑의 명령이 상대방에게만 주어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적으로 서로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수용적 자세가 부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효과적인 길이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성경적인 질서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서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역시 ‘경청’의 자세일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부부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겠다는 자세를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도 어려움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경청의 자세에 더해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다면 부부 사이에 순종이 심하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답답한 상황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것만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는 배우자와 사

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은 때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의 제안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다. 아내의 일이 남편의 일이고, 남편의 일도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때때로 서로에게 최선의 조언을 해주고픈 마음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들을 마음이 전혀 없고, 잘못된 결과가 분명한데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다. 서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배우자의 조언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사랑에 있어서도 자신의 사랑 표현을 고집하는 것은 내려놓고 서로가 가진 사랑의 필요를 하나 하나 채워주어야 하겠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요 15:12, 엡 5:21).

나눔: 배우자에게 순종과 사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서로 순종과 서로 사랑을 우선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나눠보십시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장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재’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공주제일교회’



공주는 먼 옛날 ‘고마나루’ (곰나루)라 불렸다. 천안에서 차령고개를 넘어서 공주로 내려오면 금강을 건너야 했다. 이 금강변 나루 이름이 ‘곰나루’였다. 곰나루를 한자로 쓰면 ‘웅진’ (熊津)이 된다. 백제가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64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다. 통일신라 때는 ‘웅천주’라 부르다가 ‘웅주’ (熊州)가 되었다. 사람들은 웅주보다는 곰주라 불렀고, 이것이 변해 ‘공주’가 되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후에는 충청감영이 설치되어 일제강점기까지 충청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서해안 일대에서 천주교도들이 체포되면 충청감영으로 잡혀 와 황새바위에서

처형되었다.

공주 구시가지 ‘제민천변’에 공주역사의 막내 공주제일교회가 있다. 제법 넓은 터를 차지한 이 교회에는 구예배당과 신예배당이 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만 둘러봐도 이 교회가 걸어진 길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게 된다. 교회 전면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던 신흥식 목사의 동상이 있고, 교회 뒤편에는 샤프 선교사 동상이 있다. 교회 역사관으로 사용되는 구예배당 벽면에는 사애리시 선교사와 어린 유관순이 다정히 서 있다. 3.1운동 당시 공주에서 만세를 주도했던 유우석(유관순의 오빠), 유관순

과 함께 공주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예도 (유관순 사촌언니)도 이 교회를 다녔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지도자 조병옥 박사도 이 교회를 다녔다. 또 공주시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사랑으로 지역민들을 진료해주던 공제 의원을 설립한 양재순 장로의 기념비도 있다. 공주청년회관도 이 교회에 있었는데, 독립운동단체로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췄던 신간회 공주지회였다.

교회 옆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충남도 지사를 지낸 서덕순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민족계몽을 몰심양면도 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지은 시인 이상화가 서덕순의 여동생 서운순과 혼례(1919)를 올린 곳도 공주제일교회다. 서덕순과 서운순이 공주제일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 시인 박목월도 1938년 공주제일교회에서 유익순과 혼례식을 올렸다. 유익순이 공주제일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예배당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 덕분에 내부를 역사관으로 꾸며서 교회가 걸어온 길을 알려주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스테인드글라스’다. 스테인드글라스는 대개 성당에서 접할 수 있는데, 제일교회 예배당에도 설치되어 있다. 스테인드글라스가 개신교 예배당에 설치되기 시작한 초기 작품이라 한다. 이곳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한 이는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드글라스를 시작하고 이끌었던 이

남규였다. 현관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송이와 물고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정면에 설치된 작품은 삼위일체를 형상화한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빛, 성자는 종려나무, 성령은 비둘기와 빨간 불로 상징화했다. 샤프 선교사가 공주로 오면서 가져온 오르간이 있는데 100년 이상 된 것이다. 초가 예배당, 1차 예배당, 1931년에 건축된 예배당까지 모형으로 전시해 놓아서 교회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게 했다. 1919년 평양에서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옥고를 겪고, 1929년 공주제일교회에 부임해 새로운 예배당을 완공한 김찬홍 목사의 흉상도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교회 종은 1941년 일제가 전쟁물자로 징발해 가자 정희병이 쌀 5가마를 봉헌해서 마련한 새것이다. 유관순 열사가 사용하던 그릇도 전시되어 있다.

역사관 천장은 목조로 된 골조를 그대로 노출 시켜 옛 교회건축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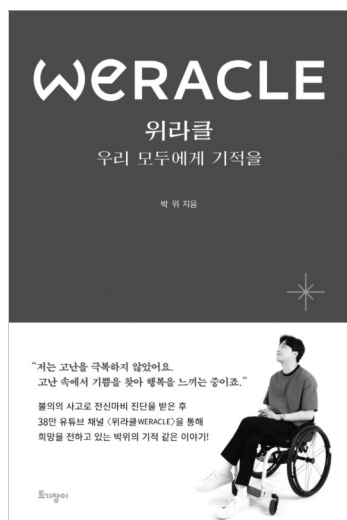
공주제일교회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짧은 글에서 다루기 어렵다. 다음 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고자 한다(계속).



임찬웅 성도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
(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신간 소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WERACLE(위라클)>
박위 저 | 토기장이 | 15,000원

신의 삶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박위 형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먹고, 자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는다.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그의 삶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박위 형제가 유튜브 채널 ‘위라클’과 신간 <WERACLE(위라클)>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삶, 그 자체가 기적이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박위 형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서 사용하는 문구다. 이 한 문장이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박위 형제의 삶과 사역을 드러낸다. 박위 형제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을 보여준다.

앞길에 창창하던 28세 어느 봄날, 박위 형제가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소견이 귓가에 꽂혔다. 그러나 절망은 잠시였다. 박위 형제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재활을 시작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 죽도록 노력했다. 혼자 옷을 입고 밥을 먹기까지, 또 혼자 대소변을 볼 때까지, 혼자 휠체어를 밀기까지 눈물과 땀에 젖은 수많은 밤을 보내야 했다.

그 노력이 기적을 만들었다.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거라던 의사의 소견과 달리 그는 지금 혼자 운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들에게 자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생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이브 어 라이프’

영화 ‘세이브 어 라이프’는 청소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쩌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영화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비극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종교가 어떻게 다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영화다.

영화 ‘세이브 어 라이프’ 제작자 짐 브리츠는 ‘뉴송 커뮤니티 교회’에서 실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들과 에피소드를 구성했다. ‘세이브 어 라이프’가 교훈적 메시지만 가득한 영화들과 차별되는 이유다.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촉망받는 농구선수이자 학교에서 잘나가는 제이크가 영화 ‘세이브 어 라이프’ 주인공이다. 제이크에게는 로저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다. 로저는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제이크를 구한 친구였다. 그런데 제이크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인기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로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이크

와 로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비극이 발생한다. 생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숨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화 ‘세이브 어 라이프’는 기독 OTT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기독교 OTT ‘풍당’ <고딩아웃> 첫 선

크리스천 청년들의 고민 해결 ...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업로드

기독교 OTT ‘풍당’ (이하 풍당)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콘텐츠 <고딩아웃>을 선보인다. <고딩아웃>은 한동대학교와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진행한 미니 드라마와 후토크 형식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고딩아웃>에서는 “썸녀가 불교래요. 관계를 발전시켜도 될까요?”, “아이돌 덕질 n년차... 저도 우상숭배인가요?”, “비트코인 띄상해서 기분 좋는데 한편으로 찝찝해요. 기독교인이 코인 하면 안 되나요?”, “선을 넘으려는 남친, 혼전순결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등 크리스천 청년들이 궁금해도 누구에게 물어보



기 어렵고, 해답을 얻기 어려운 고민을 나눈다.

<고딩아웃>은 개그맨 정범균, 한동대학교 학생들, 한사람교회 서창희

목사가 함께 만들었다.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기독교 OTT ‘풍당’에 업로드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교회에서 말씀 공부하고 뛰어 놀자!

샤이닝 키즈, 꿈아이놀이터 등 차세대 주종 사역 개강

차세대 주종 사역이 개강한다. 차세대 주종 프로그램은 서빙고, 양재, 남양주, 수원, 부천, 대전 캠퍼스에 서 부서별로 진행된다. 샤이닝 키즈, 꿈아이놀이터,

AWANA(어와나), 드림씨드, 키즈바이블, 성경 읽는 에스라 학교 등이 이어진다(표 참조).

캠퍼스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및 개강일	장소	모집인원
서빙고	샤이닝키즈	초 1~6학년	10주, 9월 17일(토)	누리홀(선교관 4층)	30명
서빙고	샤이닝키즈	6~7세	8주, 9월 17일(토)	꿈터(본관 2층)	25명
서빙고	꿈아이놀이터	18~40개월	8주, 9월 17일(토)	꿈아이홀(선관 2층)	20명
양재	샤이닝키즈	6~7세	8주, 9월 17일(토)	꿈아이홀(본관 지하 1층)	40명
양재	꿈아이놀이터	18~40개월	8주, 9월 17일(토)	샤이닝홀(선교동 1층)	20명
남양주	Awana	초 1~6학년	11주, 9월 17일(토)	2층 꿈명홀	33명
수원	드림씨드	5~9세	15주, 9월 3일(토)	조이홀(1층)	25명
수원	샤이닝키즈	6~13세	15주, 9월 3일(토)	믿음홀(2층), 소망홀(2층)	15명
수원	어와나	8~13세	15주, 9월 3일(토)	드림홀(1층), 경찬홀(4층)	0명
부천	파워키즈	초3~6학년	12주, 10월 1일(토)	경찬홀(자동차백화점 203호)	20명
대전	키즈바이블	초3~6학년	6주, 10월 1일(토)	301~304호	30명
대전	성경읽는에스라학교	중,고등학생	6주, 10월 1일(토)	누리홀	30명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9월 18일~11월 15일 매주 화요일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 26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18일부터 11월 15일 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목요일 오후(온라인)나 주일 오전(오프라인)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 조별모임을 한다. 온누리전도학교는 누구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9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10-9701-9754

선교사에게 배우는 이스라엘 건국사 ‘종횡무진’

선교사에게 이스라엘 건국사를 배우는 기회가 있다. ‘종횡무진-이스라엘 건국사’가 그것이다.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진행된다. 류모세 선교사가 ‘해

르펠은 왜 플레이보이에서 시온주의자가 되었나?’, ‘왜 이스라엘 건국 선언과 함께 전쟁이 일어났을까?’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원. 문의: 010-8550-7930

일.하.세.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하.세.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일.하.세.아카데미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6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488-5382

모리타니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영양가루, 약품 등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9월부터 10월까지 ‘모리타니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모리타니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에서는 중등도 영양불균형 진단을 받은 모리타니 다르비다미를 어린이(6개월에서 만 5세)들을 돕는다. 건강 검진, 고단백 영양가루, 약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부 아프리카 모리타니는 아동 영양실조율이 22.8%나 되고, 각종

감염 및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9년부터 모리타니 다르비다미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달 25일과 26일에 미얀마 뻬우린 지역 홍수 피해 160가구에 식량(쌀 20kg)을 긴급 지원했다.

후원: 573-910009-09905

하나은행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9월 14~11월 30일, 만 70세 이상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4일부터 11월 30일 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노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삶과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개강일(9월 14일)에 현장(양재 드림홀)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회비는 5만원.

문의: 010-8989-3473

온누리호스피스 특강

발반사 9월 22일, 호스피스 11월 3일 개강

온누리호스피스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발반사 특강’,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호스피스 특강’을 진행한다. 발반사 특강은 이안호 교수(前 숙명여대 평생교육원)가 강의한다. 호스피스 특강은 김양자 이사(무지개호스피스)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가정호스피스’, 윤득형 목사(무지개호스피스) ‘사별가족 돌봄과 애도

상담’, 이해영 실장(무지개호스피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제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소진 예방과 자기돌봄’, 박성천 목사(온누리교회) 영성특강을 주제로 한다. 두 특강 모두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원이다. 문의: 010-3412-7966

일본어예배 ‘글로벌 일대일 하이브리드반’ 모집

9월 15일~11월 24일, 일본어 회화 가능자

일본어예배부에서 ‘글로벌(일본어) 일대일 하이브리드반’을 개강한다.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대면 및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일대일 하이브리드반은 일본어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나문채 선교사, 오카사오리 사역자가 일본어 코칭 및 일

대일 양육법 강의와 실습을 인도한다.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를 1회 이상 양육하고,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702

010-3287-4511

Love Sonata

미야자키 기 · 도 · 제 · 목

- 9월 5일(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러브소나타가 되게 하소서
- 9월 6일(화) 일본 협력교회 지도자들과 실행위원, 성도들이 평안하도록
- 9월 7일(수) 참석자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9월 8일(목) 스테프, 봉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 9월 9일(금) 이재훈 목사, 출연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 9월 10일(토) 러브소나타를 준비할 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 9월 11일(주일) 날씨, 안전, 교통, 장비, 시설 등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시기를

한강공동체 아웃리치 간증



/ 박현 집사(한강공동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

한강공동체가 지난 8월 19일부터 3박 4일 동안 강원도 고성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한강공동체는 올해 초 전체적인 순 개편과 온라인 모임으로 인한 성도 간 서막함이 지속되고 있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계기가 필요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한 아웃리치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꼈다. 공동체 전체가 이번 아웃리치를 기획하고 힘을 모은 이유다.

한강공동체 7개 다락방이 고성지역 7개 교회(군부대 교회 4개, 지역 교회 3개)를 맡아서 섬기기로 했다. 각 교회의 어려운 사정과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걱정이 앞섰다. 인력이나 재정적으로 7개 교회를 모두 섬기는 것이 가능할지 우려했다. 하지만 사전답사하는 과정에서 7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7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락방이 연합하는 은혜를 부여주셨다. 말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에 맞는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셨다. 지역주민 방문전도, 장병들 일대일제자 양육, 예배 및 블레싱 등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고

성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지체들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준비팀에서는 성도 간 교제와 섬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배풀고자 끝까지 최선의 준비를 해주셨다.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권사님들은 식사와 간식을 섬겨주셨다. 단 하루라도 참여하고 싶다면 왕복 8시간 거리를 마다치 않고 달려와 준 성도님, 아웃리치에 동반한 자녀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집사님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고성의 하늘이 생각난다. 아웃리치 첫날 하나님은 쌍무지개를 띄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주셨다. 둘째 날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주셨다. 셋째 날에는 멋진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는 쓰임 받는 일꾼으로 순종했을 뿐이다. 이번 아웃리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고백한다. 7개 교회와 장병들을 잊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서초B공동체 태국 아웃리치



/ 이상준 집사(서초B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이었지만, 서초B공동체는 책임선교사(이반석, 이기쁨 선교사)의 사역지인 태국을 올해 여름 아웃리치 장소로 결정했다. 태국 촌부리의 방라뭉 지역은 인도차이나반도와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 이반석, 이기쁨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설립한 ‘글로벌 비전선교센터’가 있는 곳이다. 5년 전 아웃리치에서 눈물의 기도와 땀이 가득했던 장소이 기도 하다.

이번 아웃리치의 가장 큰 목적은 ‘엘드림 국제학교 본관 완공’이었다. 엘드림 국제학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차세대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다. 2020년 3월 개교예배를 드렸다. 수업은 다른 건물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 피와 땀이 서린 공사 끝에 차세대인재들이 학교 본관 건물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에 대한 감사예배를 기쁨으로 드렸다. 감사예배에서 강동진 목사님이 선포한 메시지는 이 학교가 차세대인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다.

서초B공동체와 CMN 라파팀은 교직원, 교회 성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내내 의료봉사를 했다. 오민 목사님의 안수기도도

이어졌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아픈 곳, 불편한 곳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보살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강동진 목사님이 양계세미나와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양계세미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양계수익모델의 노하우를 설명해주셨다. 선교사님들이 자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주기 위함이었다. 바울이 텐트메이커(tent-maker)로서 자비량 선교를 감당한 것처럼 말이다. 또 오민 목사님이 인도하신 회복사역세미나와 온누리교회 OBC 회복과목 강의도 이어졌는데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휴식을 선물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국제학교 완공을 보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전파에 더욱 힘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드린 것 같아 기뻐다. 우리 대신 선교지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늘 빛진 마음이 든다. 늘 기도도 선교현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번 태국 아웃리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한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SNS청년부 말라위 아웃리치



/ 김희수 자매(SNS청년부)

사랑이 남기고 간 것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선교 현장이 드디어 열렸다. 어느 곳이든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 중에서 언젠가 꼭 밟아보고 말겠다고 다짐했던 아프리카 아웃리치가 있어서 주저없이 신청했다.

5일 동안 소중한 영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말라위 사람들은 현지어를 사용하기에 영어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현지어 번역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데에는 꼭 언어만이 정답은 아니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연주와 무언극, 위십이 보여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다.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막힘이 있을 수 없었다.

말라위에서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공연, 팀원들의 간증과 목사님의 설교, 어린이사역, 현지 사람들과 함께 그린 벽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할 기회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 불리는 말라위에서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멋진 용사들을 만났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파송한 이석열, 박민영 선교사님 가정과 임해빈 선교사님이다.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에게 말라위는 아웃리치를 다녀온 선교지, 그리운 선교지 정도가 아니다. ‘그 다음은?’이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남은 곳이다. 킹덤파이오니어의 사명으로 주님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른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의 영혼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기이한 비밀이 나로부터 열방의 모든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로 소망한다. 그 모든 여정에 사랑만 남기를 기도한다.

W청년부 인천동산교회 아웃리치



/ 박지훈 형제(W청년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W청년부 지체들이 나에게 올해 여름 아웃리치를 어디로 갈 거냐고 물을 때마다 다짐이라도 하듯 했던 말이다. 그즈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갓 이직한 회사에서 역할에 관한 고민을 하던 중이었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몹시 지쳐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던 내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아웃리치는 과분했다.

아웃리치 광고가 나오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 아웃리치 신청 접수가 대부분 마감됐다. 인천동산교회 아웃리치만 남겨놓고 말이다. 장소 섭외 때문에 사역 일정이 늦게 확정되면서 다른 팀에 비해 신청이 저조했다. 그때 ‘어쩌면 내가 인천에 갈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인천 아웃리치 팀장을 맡으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그때까지도 내 마음이 단단했다. 목사님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아웃리치를 가더라도 팀장은 아니었다. 일주일 뒤 이번에는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았다. 전도사님께 목사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드렸다. 많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을 끝내 전도사님의 입 밖으로 끌어내고 나서야 요청을 승낙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임했다. 평소 같은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골몰했을 텐데 이번에는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각양 각색 은사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때에 알맞은 은혜를 채워주셨다. 또 인천동산교회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의 파수꾼 같은 동역자를 붙여 주셔서 내가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뚝이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W청년부와 인천동산교회의 동역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한다.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땅에서 살던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또 불순종했을 때 쫓겨 가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네 개의 영적인 땅에서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지 땅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과 상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말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열매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셋째, 죄의 열매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였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20~22절).

바울이 세 번째로 택한 단어가 ‘열매’입니다. 열매에는 점진적인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과실을 따먹었을 때 곧바로 피를 토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21절에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라고 했는데, 사망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사용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정리하면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열매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율법적인 명령 아닐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갑자기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명령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미 죽은 사건이기에 은혜의 명령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신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죄가 아닌 의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당신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을 때 당신의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은혜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근거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당신은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라”고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23절).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 누구도 죄의 압제 속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열매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의와 거룩함, 자유함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였을 때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고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망은 실제입니다.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영생도 분명한 실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영원한 생명 또한 분명한 실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야 합니다. 은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이것은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은혜의 명령입니다. 부정을 섬기고, 불법을 섬기던 것에서 이제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창조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놀랍게 순종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에 이끌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이끌려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선물을 풍성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선물이란 전두력입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축복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면 능력을 체험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모든 가족의 행복, 우리가 함께 ‘서초구가족센터’



박준기 센터장
(서초구가족센터)

서초구가족센터는 ‘생명존중’이라는 온누리교회의 목회적 비전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초구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이다.

전통적인 가족은 결혼과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집단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지금은 변하고 있다. 결혼 문화 및 인식의 변화, 세계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의 정책 서비스나 지원 변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초구가족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다각적이고,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온누리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다문화자녀 성장을 위한 작은 오케스트라 ‘글로벌아우라챔버’가 그중 하나다. 글로벌아우라챔버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양재온누리교회 챔버팀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악기를 기부해주셨고, 양재온누리교회 챔버팀의 멤버들이 지도해주고 있다. 기도와 정성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연말에 아름다운 무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두란노아버지학교와 연계한 ‘서초힐링대디’도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남편과 아버지로서 책임감과 역할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한 권위와 영성을 갖춘 아버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 등 가정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싱글맘을 지원하는 ‘오롯이가족’ 프로그램

도 서초구가족센터의 빼놓을 수 없는 사업 중 하나다. 오롯이가족은 한부모(비혼, 이혼) 또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그 자체로도 모자람 없이 온전한 가족이라는 뜻을 담은 서초구가족센터만의 별칭이다. 사회선교부 맘애프로젝트와 협업해 오롯이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롯이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문화와 여가생활을 자녀와 함께 즐기는 여유를 주고, 자아를 성장시키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가족센터에서는 서초구의 지원으로 아이 돌봄 특화사업도 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인 ‘서초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초119돌보미 지원사업’,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의 친손자를 돌보면서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

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사랑하는 손주를 보다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기와 부모, 조부모 모두 행복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서초구가족센터는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의 행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서초구 모든 가족의 행복, 우리가 함께’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서초구가족센터의 정성스러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이웃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한다.

가족을 뜻하는 영어 단어 ‘FAMILY’의 어원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해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의 가족에 깃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 문의: 02-576-2852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뽀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매주목요일오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한국어선교학교 학생 모집

대상: 한국어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세례교인 이상의 모

든 성도

일시: 9월 3일~11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

강의: 실시간 Zoom 온라인 영상강의

등록: ischool에서 등록(8월 29일까지 접수)

비용: 3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차춘근 팀장(010-3290-4506)

일본어예배부 글로벌 일대일 하이브

리드반

일시: 9월 15~11월 24일 매주 목 오후 8시

강의: 대면 및 온라인(Zoom)

대상: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1회 이상 양

육 및 일본어 회화 가능 성도

문의: 010-3287-4511

2023년 상반기(1~6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안내

일시: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지하 1층 두란노홀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

능(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이어야

함, 타 교회 상관없음)

신청자: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준비: 예약금 50만원 및 교인확인증명서

(예비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교인확인증명서' 지참)

선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추첨 후, 순

번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정 예약.

문의: 결혼예약담당 배현서(02-570-7505)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님만 가능합니다.

*결혼예배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진행

됩니다.

*추첨행사 시작 10분 전까지는 도착하시기

바라며, 오후 7시 이후 입장 하시면 순번 추

첨 예약이 모두 끝난 후 접수 받습니다.

*당일 결혼 추첨행사 참석 전에 원하시는

결혼예배 일자를 2~3개 선정하여 참석 요

청합니다.

양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일시: 10월 12일(화)~18일(월)

장소: 이스라엘 현지

대상: 이스라엘 현지를 답사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성도

문의: 010-4902-1022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4주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선교지 유아 영어 도서 기증

요청

모집: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

(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 양재 목회지원실

[illegible]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태로운 모리타니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루와 약품을 보내주세요.

서부아프리카 모리타니는 22.8%의
높은 아동 영양실조율과 더불어 각종 감염 및
질병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더멋진세상 은 중등도영양불균형으로 진단한
6개월에서 만5세의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루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중등도영양실조어린이를 위해
사용됩니다.



고단백영양가루 존디보보(COONDI BOOBO)
월 4회 제공



약품(비타민A, 구충제, 항생제 등)
월 2회 제공

후원 바로가기



후원 방법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

후원 기간 **9월~10월**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